2026년 1월 29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EU FTA 타결, 주목할 네 가지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인도-EU FTA 타결, 주목할 네 가지

인도와 EU가 1월 27일 FTA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다.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장기간 표류했던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이번 합의는 법률 검토와 양측의 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로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서명 및 비준이 마무리될 경우 통상 1년 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관세 품목 기준 86%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분 인하와 TRQ 등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개방 범위는 인도 96.6%, EU 99.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FTA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 난제로 꼽히던 농산물이다. 인도는 EU산 와인·증류주·맥주, 올리브유, 양고기, 각종 가공식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한 반면 소고기, 쌀,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촌 인구 비중이 높고 농업이 고용·물가·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개방과 보호 사이의 절충안으로 평가되며 인도 측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동집약 업종이다. EU는 인도산 섬유의복, 플라스틱, 고무, 신발, 보석류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0으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 품목은 최근 미국의 대인도 관세가 50%까지 상향된 이후 충격이 가장 컸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EU 시장 접근성 확대의 의미가 더욱 크다. 실제로 미국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된 이후 3개월간 보석류, 섬유의복, 가죽제품의 대미 수출은 각각 YoY -59%, -18%, -14% 감소하며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모디 총리가 타결 직후 노동집약 업종을 직접 언급하며 축하의 뜻을 전한 점도 이번 협정이 해당 업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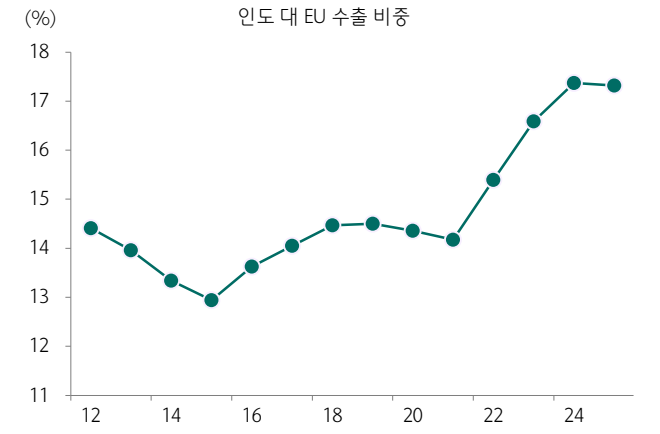
셋째, 자동차다. 인도는 EU산 완성차 관세를 110%에서 40%로 인하하고, 향후 최종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만, 관세 인하는 €15,000 초과 차량에 한정되며, 연간 25만대 쿼터 제한도 적용된다. 또한 €15,000 초과 차량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구간별로 관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기차(EV)는 5년 차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한적 개방임에도 불구하고 27일 마힌드라, 타타, 마루티스즈키 등 인도 주요 완성차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NIFTY 자동차 지수도 1%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실제 영향보다 정책 방향성 변화와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인도 내 자동차 수요가 소형·프리미엄 SUV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관세가 최종 10%까지 낮아질 경우 EU산 완성차와 로컬 업체들이 공략하는 소형·프리미엄 SUV 및 상위 트림과의 가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000 기준과 물량 제한으로 인해 EU산 완성차 점유율이 단기간에 의미 있게 확대되기는 어렵고, 관세가 최종 10%까지 낮아지는 시점은 대략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까지는 로컬 브랜드 차량과의 가격대와 일정 차이가 있어 단기 체감 경쟁 강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

서, 이번 조정은 단기 실적 훼손보다는 관세 인하 경로가 제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성격이 크다는 판단이다.

넷째, 철강이다. 인도는 EU에 연간 수출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60만 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CBAM 예외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EU는 인도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년간 최대 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CBAM 예외가 제외된 점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던 만큼, 해당 소식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 반면, 무관세 쿼터는 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도산 철강이 일정 물량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5억 유로 지원책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체계 구축과 저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CBAM 대응 기반을 강화해 EU 시장에서의 수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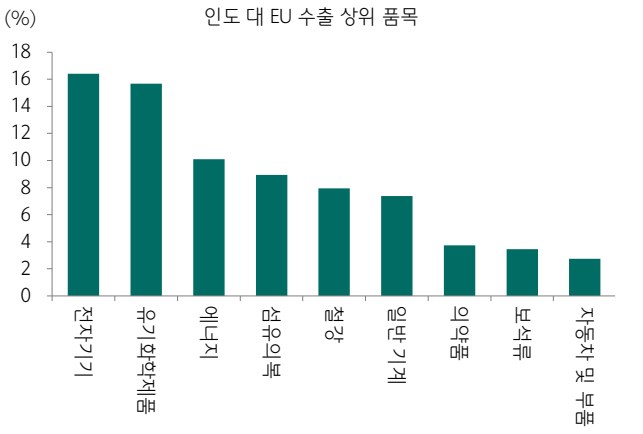
종합하면, 이번 FTA는 인도 입장에서 농산물 민감 품목을 방어하면서도 노동집약 수출 품목의 EU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철강은 EU측 수입규제 강화 기조와 CBAM 이행 과정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무관세 쿼터와 탈탄소 지원책이 포함되며 중장기 대응 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한편 자동차는 구간별 관세와 쿼터 운영 방식, 단계적 관세 인하 스케줄 등 세부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 공개되는 세부 내용 및 이행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트 1. 인도 대EU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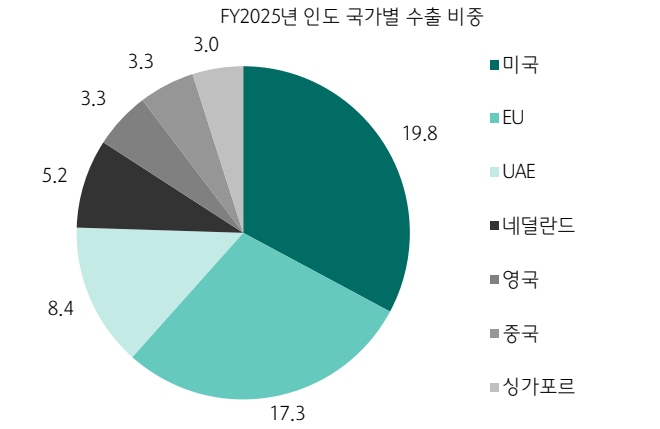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2. 인도 대EU 수출 상위 품목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3. 인도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4. 인도산 제품에 대한 EU 수입관세 변경 내용

인도산 제품에 대한 EU 수입관세 변경 내용		
품목	기존 (%)	변경 후 (%)
수산물	26	0
신발 및 가죽	17	0
섬유의복	11~12	0
화학제품	13	0
보석류	4	0
비철금속	10	0
철도 및 선박	7	0
소비재	10.5	0
문구류 및 스포츠 제품	4.7	0

자료: 하나증권

차트 5. EU산 농식품에 대한 인도 수입관세 변경 내용

EU산 농식품에 대한 인도 수입관세 변경 내용		
품목	기존 (%)	변경 후 (%)
와인	150	20(프리미엄급), 30(중급)
증류주	최대 150	40
맥주	110	50
올리브유, 마가린 및 기타 식물성 기름	45	0
과일 주스 및 무알코올 맥주	최대 55	0
가공식품(빵, 비스킷, 파스타, 초콜릿, 애완동물 사료 등)	최대 50	0
양고기	33	0
소시지 및 기타 육류 가공품	최대 110	50
키위 및 배	33	10 (물량 제한)

자료: European Commission, 하나증권